THE100리포트 Vol.101

상위 1% 부자가구 보고서

- 순자산 상위 1% 가구 분석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연구위원
보험계리사/금융투자분석사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Summary

- 2024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1% 가구 기준선은 33억원. 상위 10% 가구는 10.5억원, 상위 5% 가구는 15.2억원, 상위 0.5% 가구는 44.2억원, 상위 0.1% 가구는 86.7억원

- 상위 1% 가구들의 평균적인 모습은 64세 가구주가 55억원의 순자산 보유. 3인 가족으로 주로 수도권(81.7%)에 거주

- 상위 1% 가구는 평균 총자산이 약 61억원, 평균 부채 5.8억원으로 부채비율 9.6%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 보유. 자산구성을 보면 금융자산(18.9%)보다 실물자산(81.1%)이 더 많음

- 상위 1% 가구는 연평균 2억 4,395만원의 경상소득을 올리고, 세부 구성은 근로소득이 1억 908만원, 44.7%로 가장 큰 비중 차지, 그 뒤를 재산소득이 9,399만원, 38.5%로 따르고 있음

- 경상소득 2억 4,935만원에서 비소비지출 7,676만원을 제외하면 연간 처분가능소득은 1억 6,719만원. 이 중 연간 7,366만원(월 614만원)을 소비지출하고 9,353만원(월 779만원)의 저축여력 보유

- 상위 1% 가구중 70.8%는 미은퇴가구이고 29.2%는 은퇴한 가구. 미은퇴가구는 은퇴연령 70세, 은퇴생활비로 월 623만원 희망. 은퇴한 가구들의 실제 은퇴연령은 평균 62.8세. 실제 생활비로 월 499만원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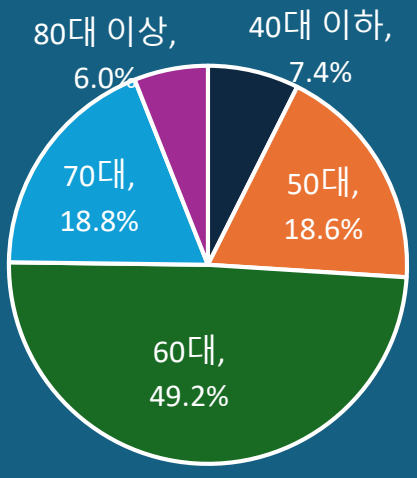
풍요 속에 빈곤

작년(2024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6,624달러로 2023년에 비해 1.2%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4년에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0년째 3만 달러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본이나 대만보다 높은 수치이며,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주요 국가 중에서 5~6위가 예상되는 선진국 수준입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풍요로운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아쉬움이나 빈곤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이러한 비교를 자신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목표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는 부자의 조건을 살펴보며, 함께 마음을 다잡아 보시죠.

[통계 개요]

1. 기초통계: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계청)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공동조사
2. 기준: 자산·부채·가구구성 2024.3.31, 소득·지출 2023.1.1~12.31
3. 분석대상: 총 18,314건 데이터 중 상위 1%가구 213건(가중치 반영)
4. 조사단위: 가구(일시 별거가족 포함)
5. 조사방식: 면접방식 표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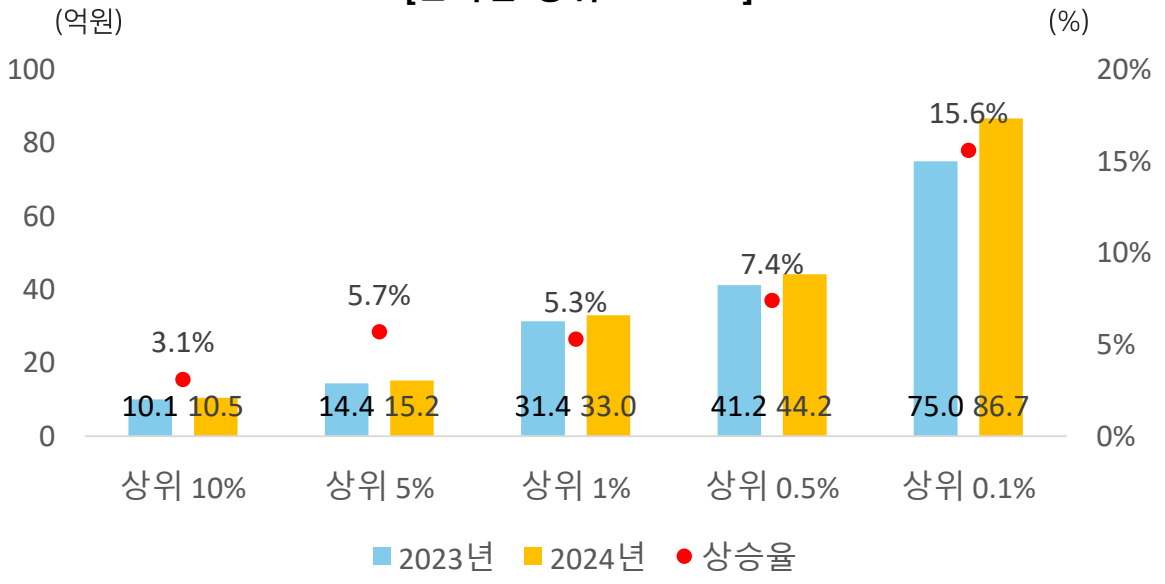


순자산 33억원 있어야 상위 1%

통계청의 2024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순자산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기준선은 3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주요 기준선을 살펴보면 상위 10% 가구는 10.5억원, 상위 5% 가구는 15.2억원, 상위 0.5% 가구는 44.2억원, 상위 0.1% 가구는 86.7억원입니다.

전년(2023년)과 비교했을 때 순자산 상위 가구들의 기준선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상위 1% 가구 기준선은 2.6억원, 5.3% 증가했고, 상위 0.5% 가구도 3억원, 7.4%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위 0.1% 가구는 75억원에서 86.7억원으로 11.7억원, 15.6%나 상승하여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반면 상위 10% 가구는 0.4억원, 3.1%, 상위 5% 가구는 0.8억원, 5.7% 증가했습니다. 순자산이 많을수록 자산증가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자산 상위 Cut-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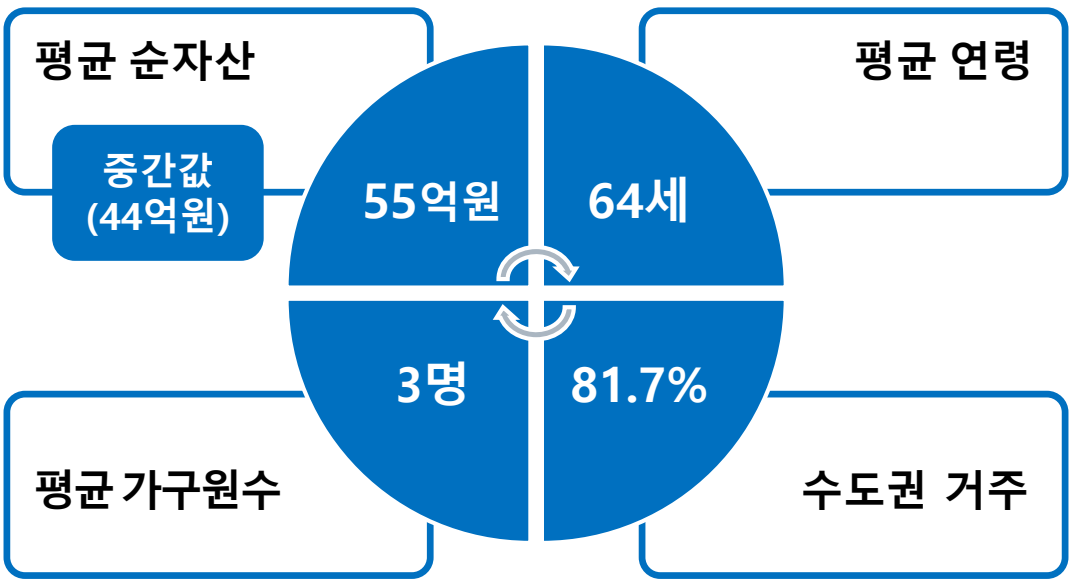
※ 과거흐름이 미래흐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료 : 2024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상위 1% 가구 평균 순자산 55억원

상위 1% 가구들의 평균적인 모습을 보면 가구주 나이는 64세(63.7세)이며, 약 55억원(54.8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자산을 모으는 것은 대체로 30년 이상 꾸준히 경제활동과 자산관리를 지속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위 1%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은 약 44억원(44.2억원)으로 이는 상위 0.5%가구 기준선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순자산이 55억원 이상인 가구는 충분히 부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1% 가구는 평균적으로 약 3명(2.96명)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2인 가구(37.4%)가 가장 많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10가구 중 8가구 이상(81.7%)이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 가구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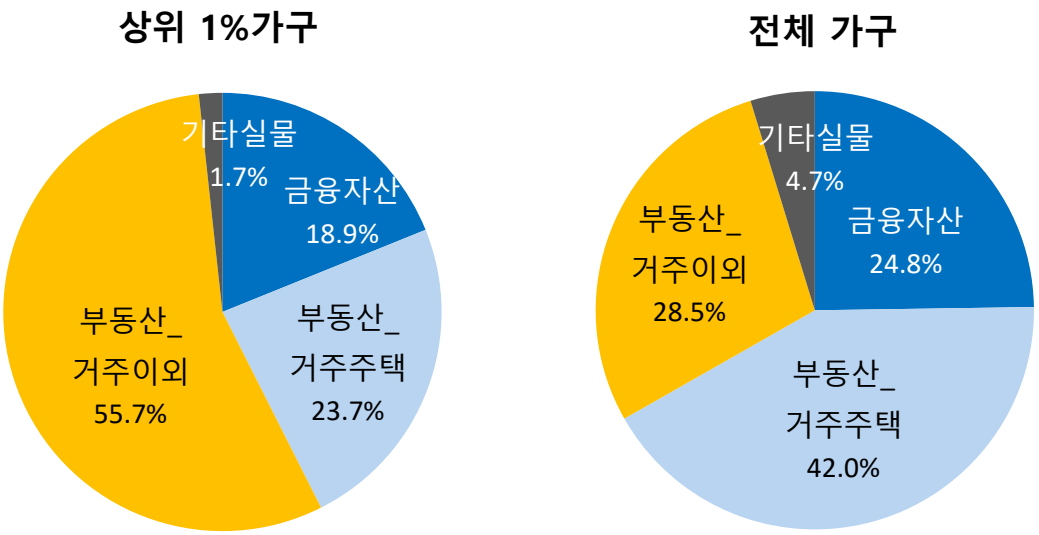
※ 자료 : 2024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부동산에 몰렸어도 금융자산 충분해

상위 1% 가구는 평균적으로 총자산이 약 61억원(60.6억원)에 이르며, 평균 부채는 5.8억원입니다. 부채비율은 9.6%로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비율인 16.9%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금융자산 18.9%, 실물자산 81.1%입니다. 이는 전체 가구평균(금융자산 24.8%, 실물자산 75.2%)보다 실물자산 비중이 더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총자산의 약 80%(79.4%)를 차지하여 부동산 중심의 자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위 1% 가구는 10억원이 넘는 금융자산(11.4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적인 문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도 거주주택(23.7%)보다 거주이외 부동산(55.7%) 비중이 더 높아, 전체 가구평균(거주 42.0%, 거주이외 28.5%)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구 자산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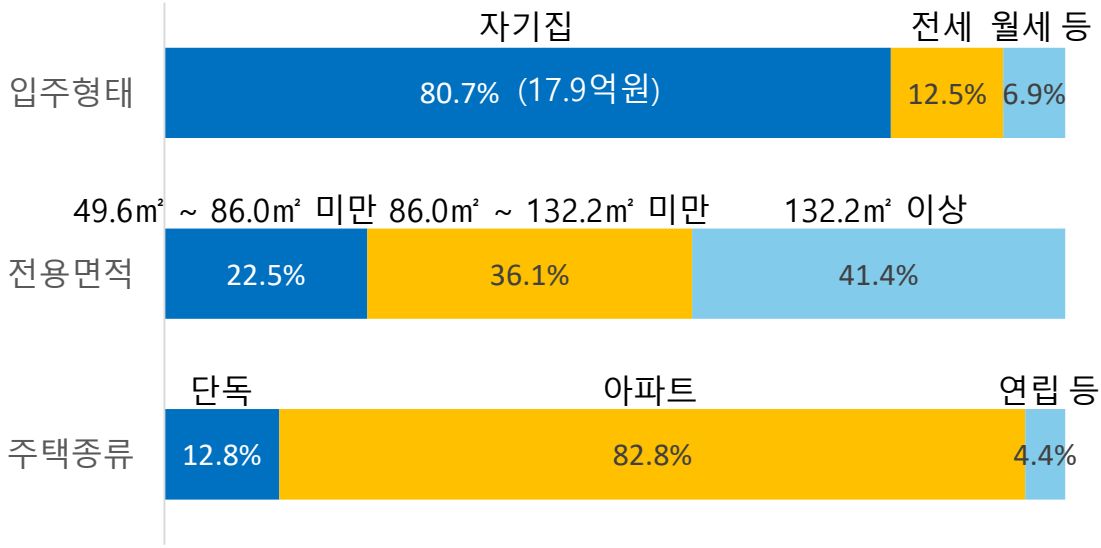
※ 자료 : 2024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부자는 대형 아파트를 선호

상위 1% 가구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80.7%가 자가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가집의 경우 거주주택 평균가격은 약 18억원(17.9억원)으로 보유자 평균 순자산(53.8억원)의 약 33%를 차지합니다. 앞서 부동산에 80% 가까운 자산이 몰려 있었지만 거주주택만 놓고 보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초대형(132.2㎡이상)에 거주하는 경우가 41.4%로 가장 많으며, 대형(86.0㎡~132.2㎡미만)에 사는 경우가 36.1%를 차지, 대부분 큰 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형(49.6㎡~86.0㎡미만)에 거주하는 경우는 22.5%로 가장 낮습니다. 거주주택 종류로는 아파트가 82.8%로 압도적으로 많고, 단독주택은 12.8%, 연립 등 기타주택은 4.4%에 불과합니다. 종합해보면 상위 1% 가구는 대형아파트에 살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상위 1% 가구 주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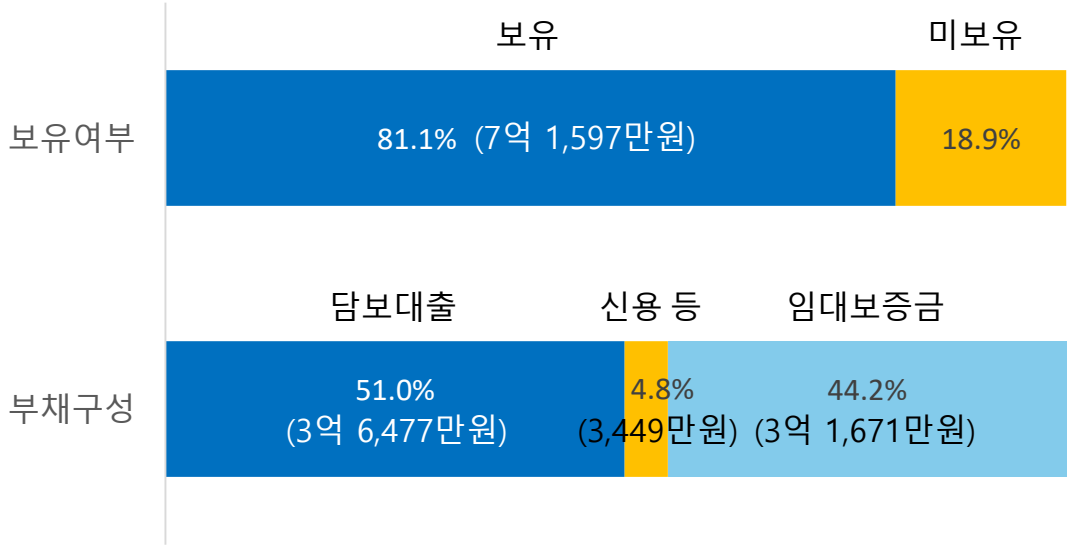
※ 자료 : 2024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자산증식 목적으로 부채활용

상위 1% 10가구 중 8가구 정도(81.1%)는 부채를 활용하고 있으며, 부채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가구는 2가구 정도(18.9%)됩니다. 전체 상위 1% 가구의 평균 부채는 5억 8,080만원이지만 부채를 보유한 가구로만 한정하면 평균 부채는 7억 1,597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그래도 총자산(65억 278만원)대비 부채 비율이 11%에 불과해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구성에서는 담보대출이 3억 6,477만원, 51.0%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대보증금이 3억 1,671만원, 44.2%를 차지하며, 신용대출 등 소비성 부채는 3,449만원으로 4.8%에 불과합니다. 상위 1% 가구는 주로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부채를 활용하고 있으며, 절대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위 1% 가구 부채현황]



※ 자료 : 2024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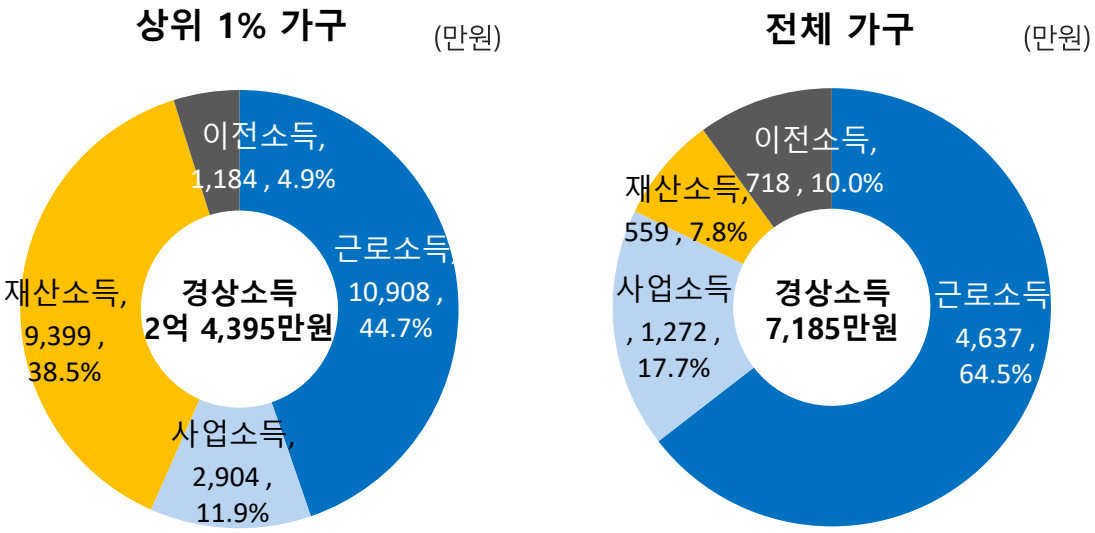
충분한 소득, 재산소득이 관건

상위 1% 가구는 연평균 2억 4,395만원의 충분한 경상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경상소득(7,185만원)의 3.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1억 908만원, 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재산소득이 9,399만원, 38.5%로 따르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와 비교했을 때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다음으로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 순으로 나타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 1%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근로소득 약 2.4배, 사업소득은 약 2.3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재산소득은 상위 1% 가구가 전체 가구에 비해 16.8배 더 많아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소득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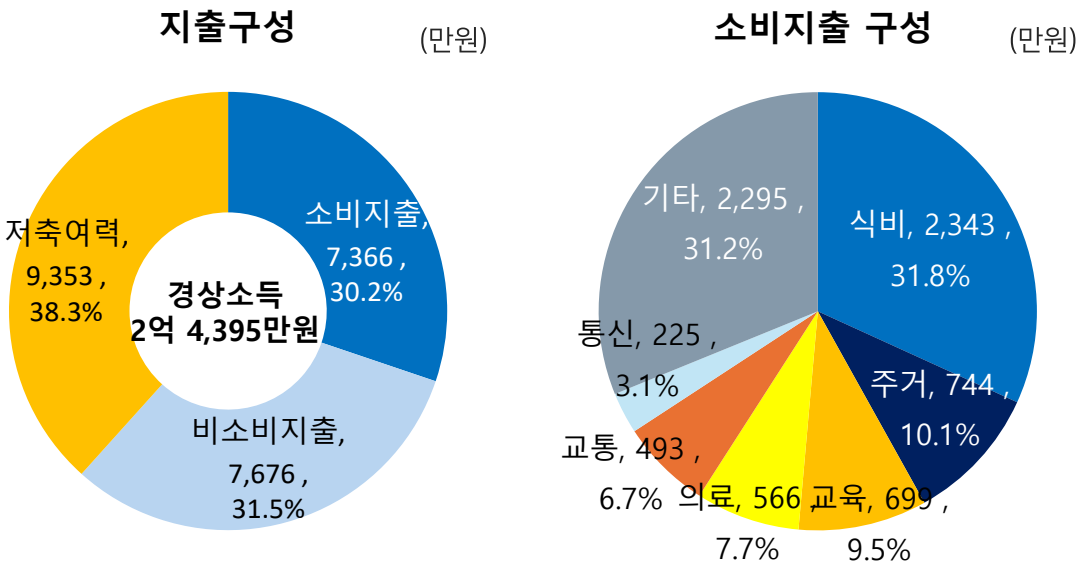
※ 자료 : 2024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비지출보다 많은 저축여력

경상소득 2억 4,935만원에서 비소비지출 7,676만원을 제외하면 연간 처분가능소득은 1억 6,719만원이 됩니다. 이 중 연간 7,366만원(월 614만원)을 소비지출하고, 9,353만원(월 779만원)의 저축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비지출보다 저축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더라도 지출하는 금액 이상으로 저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지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식비가 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주거비 10.1%, 교육비 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타 항목(31.2%)에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여가관련 비용이 식비 다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추정됩니다.

[상위 1%가구 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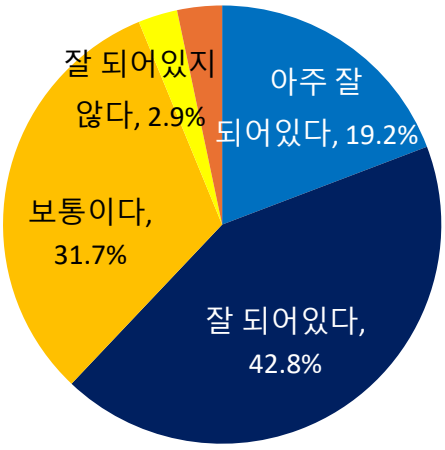
※ 자료 : 2024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은퇴생활의 이상과 현실

상위 1% 가구중 70.8%는 미은퇴가구이며 29.2%는 은퇴한 가구입니다. 먼저 미은퇴가구의 은퇴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은퇴연령 70세, 은퇴생활비로 월 623만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은퇴준비가 '잘 되어있다'이상은 62%이고, '보통이다' 31.7%, '잘 되어있지 않다' 이하는 6.3%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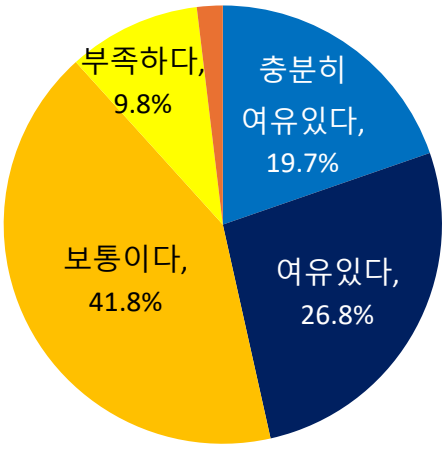
한편 은퇴한 가구들은 평균 62.8세에 은퇴하여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은퇴했습니다. 이들이 실제 지출하는 생활비는 월 499만원으로 미은퇴가구가 희망하는 은퇴생활비보다 124만원 적습니다. 또한 적정생활비 충당여부에서 '여유있다' 이상이 46.5%로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중이 낮아집니다. 반면, '보통이다' 41.8%, '부족하다' 이하 답변이 11.7%로 높아져 상위 1% 가구도 은퇴후 생활이 기대보다 쉽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은퇴가구 은퇴준비 상황]



비중	희망은퇴연령	희망생활비
70.8%	70세	월 623만원

[은퇴가구 적정생활비 충당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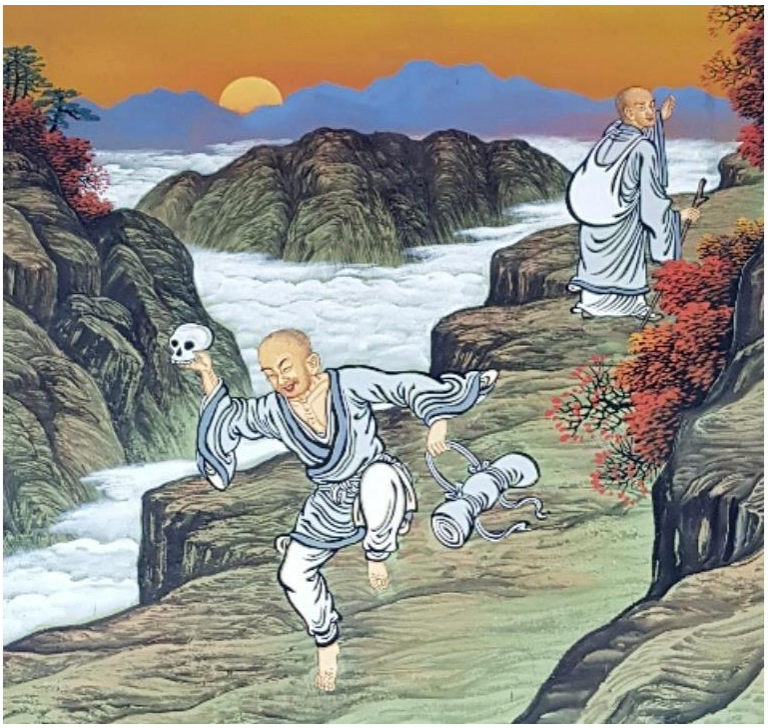
비중	실제은퇴연령	실제생활비
29.2%	62.8세	월 499만원

※ 자료 : 2024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 잠결에 무덤에서 나온 해골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한 후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려서 부자가 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듯이 자산관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인생이 짧다 하지만 자산을 늘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저축하며 투자원칙을 지키면서 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한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부자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뿐인 인생, 노력해서 부자가 되어봅시다.



일체유심조를 깨닫고 의상대사와 헤어지는 원효대사

문의처

발간일	2025. 04. 09
작성자	김진웅 연구위원
소 속	퇴직연금컨설팅본부 100세시대연구소
연락처	02-768-7712
이메일	ruby7071@nhqv.com

본 연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100세시대연구소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판단의 최종책임은 전적으로 열람하시는 이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자료는 작성자의 개인 의견이며,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연구자료를 인용하거나 전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